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주관 중 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너라
(빌립보서 1:21)

발행처: 대한예수교 중원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THE WEEKLY CHONG HYUN

발행인: 김성환 편집인: 김은호 편집국장: 조순근

'98 청지기훈련 내일 저녁 7시에 개강예배

모든 강의를 녹음하지 않기로

개강은 2월 2일 저녁7시, 모든 일꾼과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 기대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딤후 2:15)

감사와 기대로 기다렸던 '98 청지기 훈련이 어느새 내일로 다가왔다. 교구와 교회학교, 찬양대와 전도회 등 각 부서와 기관에서는 모든 청지기들이 이 특별한 기회에 참여하도록 홍보해 왔다. 교회는 이번 기회를 통하여 중원의 온 성도들이 말씀의 비밀을 깨닫고 새로워져,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방향을 맞춘 고등부 및 대학·청년부 학생들 다수도 동참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리고 금번 훈련의 결과에 따라 기회가 되는 대로 타교회의 지도자들을 말모임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도 고려하고 있다.

교회는 강사들과의 약속에 따라서 강의녹음을 하지 않기로 했으며, 수강자들의 개인적인 녹음도 금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강의를 정리해서 이해하고자 하는 성도들은 노트와 필기구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교회는 훈련에 참가하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참가자들에게 점심과 저녁식사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T. 롱맨 교수와 P. 엔스 교수는 이미 여러 차례 일주일에 교회 부근 속소에서 머물고 있으며, 모든 강의가 끝난 후 2월 7일 출국할 예정이다. 이 두 교수는 2월 6일 오전 중 일부의 교회일꾼들을 대상으로 '침의 응답의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그리고 G. 플러 교수는

2월 2일 입국하여 2월 5일에 출국할 예정이다.

개강예배를 인도하는 김성환 위원목사와 이 세 교수의 강의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아름답게 진행될 수 있도록, 또 강의를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깨끗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준비되도록 온 성도들의 뜨거운 관심과 기도가 요청된다.

"이제는 사랑 담긴 물품으로
구제합니다"

수정된 구제 정책

교회는 올해의 구제 예산을 대폭 인상하였다. 무엇보다도 교회가 지향하는 구제의 목적은 '여기 있는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성실한 순종에 있다. 특별히 교회는 올해부터 실제적인 구제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식생활에 필요한 물품으로 구제하는 것을 골라주 구제정책을 수정하였다. 당장 구제가 필요한 이웃들을 찾아 생계에 필요한 물품을 전달하면서 그들과 성도들 간에 복음 안에서의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배려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성도들은 실질적인 구제와 더불어 복음이 필요한 이웃들을 찾아 교구 교역자들에게 소개하고 기도하는 일에 마음을 모아야 할 것이다.

	2월2일(월)	2월3일(화)	2월4일(수)	2월5일(목)
오전10-12시	T. Longman	T. Longman	G. Fuller	P. Enns
오후 1-4시		T. Longman	G. Fuller	P. Enns
오후 7-8시	개강예배 김성환 목사		1-3시	P. Enns
오후8-10시	T. Longman		수요예배 P. Enns	

수정된 장학금 지급규정

장학금 본래의 정신 살려 인정받는 일꾼기우기로

도 서장학회에서는 올해 전반기부터 장학금 지급규정을 수정하여 시행하기로 했다(개정된 자세한 지급규정은 당회보고 후 2월 15일자 주간순례에 게재). 지급규정 수정의 배경은 그동안 장학금 지급이 진정한 의미의 '인정받는 일꾼양성'보다는 이해관계나 인정에 이끌린 선발과 지급에 치우쳤다는 반성이었다. 이에 따라 도서장학회는 좀 더 엄격한 선발과정을 통해서 '참다운 의미의 장학생'을 선발하고 가능한 한 그

들을 꾸준히 지원함으로써 본의에 맞는 천국일꾼 양성을 이루는 일'에 집중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따라서 장학생을 추천하는 기관이나 개인들은 보다 신중을 기하여, 정직하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추천해야 할 것이며, 이들이 장학생으로 선발된 이후에도 꾸준히 신앙과 학문에 성실한 진보를 이루어가도록 돕고 세화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한 성도들의 관심과 기도 역시 꾸준히 요청된다.

98년도 제1차 학습·세례식 2월 15일 실시

오늘과 다음 주일에 학습, 세례를 위한 교육 및 문답

유아세례식은 2월15일 오후3시, 갈릴리움에서

날짜	시간	학습자	장소	세례자, 개종자, 입교자	장소	유아세례자	장소
2월 1일 (주일)	1교시 15:00-15:50	기독교개요 (임인식 목사)	교육관 314호	세례란? (김병준 목사)	교육관 307호		
	2교시 16:00-16:50	성경개요 (정원민 목사)	교육관 314호	교회론 (권형준 목사)	교육관 307호		
2월 8일 (주일)	1교시 15:00-15:50	구원론 (이승수 목사)	교육관 307호	구원론 (이승수 목사)	교육관 307호	유아세례란?	교육관 309호
	2교시 16:00-16:50	문답	교구별 장소	문답	교구별 장소		
2월 15일 (주일)	찬양예배	성인 학습·세례식	(지역 찬양예배, 문답)			유아세례식	(오후 3시, 갈릴리움)

2월의 행사

2-5일 청지기훈련
11일 정기당회
15일 학습 및 세례식
1-28일 각부 성경학교, 수련회
경로심방
학생심방

금요집회 찬양 연주자

6일 장로 증창단,
대학부 증창단,
소프라노 김송자
13일 청년2부 플로스증창단,
대학부 NMC합창단,
소프라노 신동의
20일 안수집사 증창단,
박찬섭 안수집사 가족창,
태너 정하주
27일 청년1부 증창단,
조규호 안수집사 가족창,
소프라노 강진희

전도위원회 영성훈련

· 시간:
2월 1일 오후 3-4시
교회사랑운동(동회수 목사)
2월 8일 오후 3-4시
전도운동(김희수 목사)
· 장소: 갈릴리움

이번 기회에 고집시다 (2)

'예배 지각'

교회는 신년 초부터 하나님께 시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회복'을 강조해 왔다. 그리고 이것을 올 한 해의 최대 목표로 삼았다.

감사하게도 대다수 성도들은 이에 대하여 성실한 순종과 실천으로 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예배에 지각하는 성도들의 숫자가 두드러지게 줄었다.

그러나 여전히 예배시간이 임박해서 달려오거나, 이미 시작한 지 수 분 혹은 수십 분이 지난 다음에야 유유히(?) 들어오는 성도들이 적지 않다. 하나님 앞에서 '눈도장' 찍는 수고를 인정해 주 기에는 너무나 안일한 모습이다.

예배를 예배답게 드려야겠다. 매 예배시간 20분 전에는 자리를 잡고 앉아서 예배 전 찬양자들의 찬양을 마음으로 공유하면서 기도로 준비해야겠다.

특히, 자리에 앉을 때는 의자의 가운데부터 앉으므로, 뒤에 있는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의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하겠다.

● 김성관 목사의 다음주일 설교 ●



변할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의 복음 (갈라디아서 1:1-10)

사도 바울이 기록한 열세 편의 말씀 중 하나인 갈라디아서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사랑과 헌신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갈라디아인들은 바울의 첫 선교대상이었습니다. 첫사랑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떠난 후에도 자연히 그들은 말씀훈련을 지속하였고 믿음을 전파하며 실천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불행하게도 그들은 중생을 잃고 복음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이러한 가슴아픈 소식을 접하고 나서 바울은 매우 강경하고 소상한 내용의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의 서두는 솔직하고 직설적입니다. 겉절거니 내절거니는 없지만 힘있고 진절합니다. 거칠게 시작하지만 그의 중심에는 사랑이 가득합니다. 꾸밈이 없는 말로써 갈라디아 교인들을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의 편지는 문안인사로 시작합니다. "사랑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1절). 이 담대한 진술은 사도 바울의 사람됨을 너무나 명쾌하게 보여 줍니다. 그는 자기 자신과 및 자신을 지명하여 사도로 삼으신 이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특정 종교단체나 사람의 부들로서만 된 것이 아님을 알았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살리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음을 담하게 선언합니다.

그의 인사말은 계속됩니다. "갈라디아 여러 교인들에게서 난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좇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2-3절).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축복의 인사를 보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의도하는 것을 아시겠습니까? 그는 갈라디아교회에 순전하고 완전한 복음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은혜와 평강의 참된 의미를 기록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드셨으니"(4절). 주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는 무슨 대가도 평강의 복음을 접하게 할 때, 여러분은 평강을 자녀 삼으신 그분께 무릎꿇고 경배하리곤 간절한 마음이 우리라지 않으십니까? 그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돌리리곤 마음을 갖게 하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경험한 바울은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5절). 바울이 '은혜와 평강'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강조하는 것은 그것이 아름다움 말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그 의미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바로 이 믿음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시며, 그의 강직한 성품을 통해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하게 하십니다. 바울의 믿음과 성품이 조화됨으로, 그의 행동과 말에 힘과 강직한 메시징을 담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경건한 문안 인사 후, 사도 바울은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는 듣기 좋으라고 돌려 말하거나 미화시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내가 이제부터 다른 복을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6절). 바울은 갈라디아인들의 이해할 수 없는 태도에 대해 자신이 받은 충격을 직선적으로 나타냅니다. 그는 갈라디아인들이 그리스도를 등지고 참복을 떠나 다른 복을 좇는 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바울의 가슴은 주님의 은혜로 충만해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인들의 죄를 알았고 그들을 위해 생명을 자기 십자가에 다스려 줄 것을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는 비탄을 통해 그들의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공개적으로 그들의 그릇됨을 비난하고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한편 상상에 보십시오. 어떤 성도가 찾아와 여러분의 행과실이 좋지 않음에 그 것으로 인해 자신이 시련을 받고 있다고 말한다며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좋은 것을 좇았습니까. 남보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또 교회에 열심히 다녔습니까. 그런데, 이런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찾아와 이렇게 자문질을 할까도 모르겠네요. 바울이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도전한다면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나니"(7절)라고 말합니다.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참복음과 비슷한 것은 하지만 왜곡되고 변질된 거짓 은혜와 평강을 말합니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단강에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여 한 이라"(7절). 바울은 이어서 갈라디아교회 지도자들에게 그들의 개인적인 이해와 견해를 복음에 더하십시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변질시켜놓을 지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들은 교회를 이직시키고 주님의 복음을 왜곡시키고 그릇되게 전파하도록 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우리 생각이 아닌 그분의 생각을 본다는 것이 절대임을 확언합니다. 우리의 의지와 생각

은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하나 오직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 지식의 진보와 자신의 이해력과 자부심, 의지 등을 슬며시 주님보다 앞세울 때, 이런 왜곡이 생기는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은 은혜와 평강의 복음입니다. 주님만이 우선권을 가지셔야 합니다. 은혜와 평강에 거머쥔 자신의 의지와 방법을 완전히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이 믿음만이 우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가게 할 것이며, 우리를 죽음에서 무환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힘있고도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8절). 놀랍습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중요하며 대단히 강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인들을 책망하여 이르기를, 하늘로부터 온 천사를 비롯하여 그 누구라도 바울 자신이 그들에게 전한 주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강조하여 경고합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믿는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9절).

우리는 두 번에 걸친 바울의 경고를 정신을 차려 주셔야 합니다! 이 경고의 말씀이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을 흔들고 깨워야 합니다. 누구라도 순전한 은혜와 평강의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증거한다면 그들은 영원한 형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21세기를 바라보는 오늘날의 많은 교회지도자들과 성도들에게 너무나 적절한 메시지입니다. 너무나 많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뒷전으로 하고 그들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잘 알지 못하고 그 속에 거하지 함으로 그릇된 가르침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우리의 경험과 직식을 통해 무관용론을 해결하려고 하고 또한 장래의 일들을 계획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생각과 방법은 어김없이 우리를 더욱 곤경에 처하게 하고 끝내는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분을 섬기는 자입니다. 저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목사입니다. 여러분도 각자 다른 모습으로 다른 직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속에 살아가면서 그것을 다른 이들과 나누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그분의 은혜와 평강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각각 다른 환경은 우리로 하여금 각기 다른 방법을 취하게 하지만,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만은 늘 동일합니다. 그분의 은혜와 평강이 언제나 우리에게 흡족합니다. 그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시오.

불행하게도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세상과 사람들에서 인정받으려고 애씁니다. 많은 교회의 지도자들은 사관들의 비위를 맞추며 그들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성도들은 세상적 부담과 관습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유명 한 신학교와 종교단체에서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세상을 잘 이해하는 인간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누가 철학자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좇음이요 그리스도를 좇음이 아니니라"(골 2:8). 우리들은 온전히 주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다음과 같이 만민함으로 이러한 생각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보내 하나님께 종래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요 더디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10절). 우리들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따라서 하나님만 기쁘게 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알고 사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잊어버리고 살면서 주님 앞에 부끄럽고 죄스러운 때가 너무나 많습니까. 오직 우리가 그분의 은혜와 평강 속에 거할 때 사도 바울과 같이 담대하고 용기있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몸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성전 안에 있어 주님의 임재성을 경험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실 때, 은혜와 평강은 더욱 밝게 빛나며 사랑을 부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소중히 간직하여 성령님을 통해 세상과 나누어야 할 은혜와 평강입니다. 이 소중한 은혜와 평강을 그릇되게 하거나 소홀히 여기면 안될 뿐더러 만약 우리가 그와같이 행한다면 영원한 형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고 단호한 메시지를 갈라디아교회에 전했습니다. 그는 갈라디아인들의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참으로 단호합니다. 세세토록 영광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입니다. 아멘!

☺ 나의 주 나의 하나님 ☺

내 길 인도하신 이 오직 예수 1

전쟁의 아픔 속에서 만난 고아들 그리고 동광원의 예수님

박 양 덕
(전도사, 교정전도회)



가족들 죽음을 넘어 찾아오신 예수님
나는 전남 나주에서 태어났다. 가족은 모두 어섯 명으로, 부모님과 나, 그리고 여동생 둘과 남동생 하나였다. 그런데 내 나이 열세 살이 되던 해 6월에 두 살밖에 안된 여동생이 죽었고, 일년 정도 병환을 앓으시던 아버지는 같은해 12월 23일 세상을 떠나셨다. 게다가 한달 후에는 하나밖에 없는 남동생이 그 뒤를 이었다. 남동생마저 죽자 어머니는 너무나 어이없어 하셨다. 여섯 식구 중 셋이 먼저 갔고, 이제 셋만 남은 것이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서 어머니는 죽은 남동생의 시신을 밤 한 구석에 밀어놓은 채 말씀하셨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어야겠다." 그래서 어머니와 나와 여동생은 귀동냥으로 주위들은 찬송가를 밤을 새워 불렀다. "머칠 후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라..."



▲ 젊은 시절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한때.

원을 가지고 미성을 구입해서 중부시장에서 미성자수 일을 하게 되었다.

잃어버린 돈, 받은 사명의 은혜

그런던 중 소개를 받은 교회가 바로 충헌교회였다. 너무 큰 은혜를 받고서 등록을 한 후 1973년 김창민 목사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무엇이든 배울 수 있는 것은 다 배웠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행하는 많은 교육프로그램을 열심히 쫓아다녔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즐거웠다.

하지만 바로 그때, 다른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어떤 여직사의 속임수에 빠져서 150여 만원의 돈을 사기당하는 슬픔을 겪었다. 내 유일한 생계수단이었던 미성까지 빼앗겼을 것이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었다. 이제 먼 더 큰 돈을 배울 수 있으리라는 내 스스로의 욕심이 그런 결과를 낳았지도 모른다. 아했구나, 고통은 말 할 수 없었겠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나의 평생의 사명을 깨닫게 되는 특별한 기회가 될 줄이야...

나는 힘겨움을 잊기 위해 교회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다 배워냈다고 결심하고 열심히 뛰어 다녔는데, 그런 와중에서 기도원에서 열리는 선교훈련에 참가하게 되었다. 그때 한밤중에 술밭에서 개인기도를 하던 중, 나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힘이 듭니다. 그러나 저로 하여금 외롭고 피로워하는 자들을 위로하는 일을 하게 해 주세요." 기도하는 자가 내가 아픔을,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임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순간이었다. (계해)

호르고 있는 모습이 한 눈에 들어온다.

산과 묘지, 산은 정복해야 할 도전이 있는 곳이라면 묘지는 인생이 반드시 돌아가야 할 곳이다. "조상집에 가는 것이 관저에 가는 것보다 나쁘고 모든 사람이 결국 어귀같이 돌아가 산 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다"(전 7:2)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지리적 조건을 가진 15교구 지도에 김진식 목사님과 오인숙 전도사님은 올 한해도 생사귀부의 인생역정의 성도들을 위한 섬김의 장으로 보내린 미끄러운 길을 경노심방(1월 20일)으로 시찰하며 발걸음을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고 있다. (한국청 통신문)

▶ 에베디부(오)는 2월 15일 수화교실이 개강을 한다. 기간은 3개월이고 시간은 매주일 오후 3시와 매주 수요일 오후 12시 30분이다. 하라되는 시간을 선택하여 오늘날에 에베다부 교사사역에 신청을 하면 된다. 이 수화교실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성도들이 많으시길 기도한다.

▶ 신촌가정부(오)는 신촌역과 제창가를 합쳐진 신촌 가정부에서 배가운동을 하고 있는 중이다. 현재 이번 배가운동을 위해 교회에 접수된 결혼 신청서를 가지고

2월 8일 예배 전 찬양곡목 및 연주자

◆ 2부예배

바리톤 강임규

(피아노 / 김남욱)

연세대 음악대학 교회음악과 졸업

독일 뮌헨국립음대 졸업

독일슈투트가르트국립오페라단 단원

기독교대 출강

실로암찬양대 지휘

(찬양곡목)

· 은유한 주님의 음성(찬 319장)

· 외롭게 사는 이 그 누구군(찬 413장)

· 감사해

· 오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 3부예배

테너 정학주

(피아노 / 조희영)

미국 UCLA음악대학 졸업

미국 USC음악대학원 졸업

(M.M. degree)

전 경성대, LA City College 교환교수

MGM Musical Programmer

The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Hollywood

Cathedral Choir(Fred. Bach 지휘) 솔로리스트

할렐루야찬양대 솔로리스트

(찬양곡목)

·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찬 318장)

· 내 영혼이 온종일 임어(찬 495장)

· 주 날개 밑에 내가 편안히 쉬네(478장)

· 저 높은 곳을 향하여(찬 543장)

· 나 가나안 복지 귀한 성에(찬 221장)



◆ 4부예배

피아노 최순복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기악과 졸업

미국 워싱턴대학 석사 및 박사학위 취득

폴란드 소피아음악원 수학

주제대, 서울장신대 출강

시온연합대 피아니스트

(찬양곡목)

· 인파의 기쁨이 되시는 예수

· 거기 너 있었는가(찬 136장)

·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찬 40장)

· Amazing Grace

· 주기도문



◆ 5부예배

소프라노 김서영

(오르간 / 민희정)

그리스도신대 음악과 3년 재학

대학부친양대 솔로리스트

(찬양곡목)

· 주 예수 대문 밖에(찬 325장)

· 외롭게 사는 이 그 누구군(찬 413장)

·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찬 469장)



전와 연막이나 여러 사람들을 권유하며 기도로 모두 움직이고 있다. 새로운 가정을 만들려는 많은 성도들이 이곳에서 주님 안에서 가정을 바로 세우고 갈등이나 문제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슬기롭게 풀어나갈 기대한다. (박주영 기자)

▶ 경찰전도회 / 경찰의 복음화를 위하여 함께 봉사 할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헌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에 뜻을 함께 하신 분은 봉양 지하 아멘홀옆(구 대진와 255)로 가입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월례회는 15일 오후 3시 칼빈홀에서 있습니다. (경찰전도회 통신원)

지혜들 소식

▶ 영아부 / 영아부의 선생님 한 분을 소개합니다. 회계과 과장님으로 봉사하시는 강석복. 그분은 선한 행실과 늘 밝은 모습, 순전한 믿음, 드러나지 않게 그러나 확실하게 봉사합니다. 가정을 깔끔히 돌보며 교사로, 집사로 봉사하며 지매를 앓고 개선 시어머니를 지극히 섬기며 만날 때마다 즐거워하시는 모습. 가끔 웃기는 한 마디로 우리를 놀라게 한다. 우리 열매, 우리 영아부에 강 집사님이 계시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다. (송혜정 통신원)

▶ 15교구 / 유난히도 푸짐하게 내린 눈이 창 목로 보이는 겨울. 관악산을 한 폭의 그림으로 만들었다. 하나님아 손수 그칠 수 있는 산수화이다. 관악산 정상에 올라 북쪽을 향해 서면 멀리 북한산, 그 앞에 아담한 기도의 산 삼각산과 청화대, 그리고 파란색 동각대교를 지나 동각동 국립묘지를 감싸듯 한강이 휘돌아

교 회 소 식

● 알 림

1. '98 청지기 훈련 안내 / 2일(월) 19:00부터 5일(목) 저녁까지 매일 연속 강의로 본당에서 있습니다. 모든 청지기들(예제 전원, 각 부서 봉사자, 위원회 및 교육원, 교사, 찬양대원, 전도원, 양육부원, 교회직원, 청년 대학부 인원, 차량관리부원)과 평신도 총 원하시는 성도는 누구든지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2. 제1차 학습 및 세례식 안내 / 학습 및 세례, 개종, 입교를 받을 성도는 아래 교육일정에 따라 참석하십시오. 유아세례 교육은 8월(다음 주)에 있습니다.
 - 오늘 학습(교육관 314호) : 1교시(15:00 - 15:50) / 기독교 개요(김진식 목사) 2교시(16:00 - 16:50) / 성경 개요(정현민 목사)
 - 오늘 세례, 개종, 입교(교육관 307호) : 1교시(15:00 - 15:50) / 세례란(김병태 목사) 2교시(16:00 - 16:50) / 교회론(전영훈 목사)

* 학습, 세례식 : 15일(주일) 찬양대에서, 본당
* 유아세례식 : 15일(주일) 15:00, 갈릴리움

3. 남전도부 임원 및 직능지도부 임원형 성향회 / 오늘, 8일(다음 주일) 15:00부터 16:00까지 갈릴리움에서 있습니다.
4. 수화교실 개강 / 15일(주일) 15:00 교육관 109호에서 개강예배를 드립니다.
 - 과정(4개월) : 초급, 중급, 고급반 - 문과 : 예배대부실(교육관 109호)
5. 회계실무 교육 / 15일(주일) 15:00부터 16:00까지 교육관 307호에서 있습니다 (1월분 시산표 지참요) . 대상 : 남전도회 회계, 부회계, 교육위원회의 회계, 부회계, 기타 위원회 총무처장 또는 총무, 회계
6. 시청각실 운영 / 매주 월, 수, 초, 소년부를 대상으로 10:00부터 16:00까지 교육관 209호에서 시청각 교육이 있습니다.

● 모 임

1. 정기(당회) / 11일(수) 11부예배 후, 당회실
2. 장로 회요새벽기도회 / 3일(화) 새벽기도 후, 교육관 109호
3. 감사위원회 월례회 / 오늘 16:10, 선교관 404호
4. 실업인전도회 기도회 / 매주일 15:00, 실업인전도회실
5. 실업인전도회 목요기도회 / 5일(목) 새벽기도 후, 실업인전도회실
6. 경질전도회 월례회 / 15일(주일) 15:00, 칼리움
7. 안수집사회 월요새벽기도회 / 2일(월) 새벽기도 후, 교육관 109호

● 남전도회

1. 베드로 13 / 오늘 05:30-06:30, 칼리움

● 결혼

1. 이병민군(이종상 씨, 박선희 씨의 아들)과 김진원양(경종철 성도, 김국강 집사의 딸, 제1교구) / 3일(화) 12:00 갈릴리움
2. 이윤근군(이부영 성도, 김진희 집사의 아들)과 김미성양(김영봉 집사, 김소선 권사의 딸, 제9교구) / 6일(금) 14:30 갈릴리움
3. 김택수군(김윤종 씨, 김안인 씨의 아들, 제19교구)과 이주영양(이학주 성도, 이계범 성도의 딸) / 7일(토) 13:00 갈릴리움

● 주 소 및 전화번호 변경

1. 정문석 장로, 이옥남 집사 / 장친구 뉴욕동 52-28, 전화: 468-2320
2. 이영하 안수집사 / 강북구 우이동 72-87, 전화: 997-0562

※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연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연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연도자
223	오한균	1	청년2부		232	정대인	16	청년2부	안선미(10)	241	손주희	6	고등부	이은경(6)
224	박준옥	2	청년2부		233	유수남	17	소망부	김옥실(11)	242	이윤순	8	청년2부	이성옥(10)
225	김정국	6	청년2부		234	류정란	19	청년2부		243	구현자	8	청년2부	이성옥(10)
226	이금홍	6	청년2부		235	박동환	19	청년2부		244	이순희	8	한나	이성옥(10)
227	김민정	6	대학부	홍정순(6)	236	권혜진	19	청년1부	윤춘심(17)	245	김미수	17	청년2부	이성옥(10)
228	신인철	8	대학부	예자아(8)	237	하보미	1	청년1부	이성강(12)	246	조영희	19	고등부	
229	이준근	8	베드로	장영창(8)	238	조향숙	19	청년1부		247	조훈범	19	중등부	
230	한인섭	9	청년2부	박영순(13)	239	김정원	9	청년2부						
231	최용진	15	대학부		240	황혜용	4	청년1부	최혁수(4)					

※충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금주의 기도 제목

- ① 2월 2일부터 5일까지 있을 '98 청지기 훈련이 하나님의 크신 은총 가운데 진행되게 하소서. 강요하시는 분들과 강의를 듣는 모든 청지기들에게 말씀의 본질을 깨닫는 은총을 허락하소서.
- ② 2월 8일까지 제2주일마다 실시되고 있는 전도위원회 영성훈련이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 ③ 계속되는 겨울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 학생들의 심령이 말씀으로 부흥하게 하소서.
- ④ 오늘 예배전 찬양을 담당하는 지저스라이프 남성중창단, 여성중창단(2부), 김남욱(오르간, 3부), 홍승현(트럼펫, 4부), 이예스더(바이올린, 5부) 성도들이 영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 ⑤ 모든 성도들과 기관과 교회가 선교의 열기가 활활 타오르게 하셔서 많은 젊은이들이 선교의 대열에 힘써 참여케 하소서.
- ⑥ 새벽기도회와 금요집회가 계속해서 힘있게 일어지게 하소서.

■ 원로목사

김창인

■ 위임목사

김성관

■ 부목사

이종선 김희수 조준재 이종대 현상민

박경환 김동희 한근수 이승민 김필립

전환환 김재철 이금수 정갑진 정현민

이준환 조철수 김동하 차병문 김병태

김진석

■ 협동목사

윤영택 박형용

■ 선교사

이준규 안석렬 김영대

■ 감도사

이준경 박노철

■ 원로전도사

이두란

■ 여전도사

최순복 정연희 현정남 정복인 장영자

임태주 김경자 배옥인 최지혜 손미희

송향자 신동자 윤인숙 오정숙 오인숙

김옥환 한영준 박종호 박희자 김영숙

김복순 최영란

■ 교정전도사

백인덕

■ 교육전도사

박인기 염현일 한승일 이종관 김경기

송원석 김창종 조재민 최진우 허규근

■ 선교전도사

정성기 정은희

■ 평신도전도사

유병세 김형선 이기성 김형영 고은빈

충현 성경통신 강좌

1998. 2. 1 제98-5호

출애굽기 29장 ~ 레위기 10장

(제) 교구 지역 구역 () 이름

1. 다음 성구는 몇 장 몇 절에 있습니까? (출애굽기 29 ~ 34장)

- 1)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라 되리니 ()
- 2) 그것들을 지성물로 구별하고 무릇 이것에 접촉하는 것이 거룩하리라 ()
- 3) 중대한 돌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같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
- 4)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
- 5)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나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리라 ()
- 6)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권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

2. 다음 성구를 완성하십시오. (출애굽기 35 ~ 40장)

- 1) 또 그와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암을 감동시키사
- 2) 기둥이며와 그 가름대를 금으로 썼으며 그 다섯 받침은
- 3) 동대 줄기에는 삼구름 형상의 잔 넷과 받침과
- 4) 다섯 은은 칠십 달란트와
- 5) 본즉 여호와께서 명하신대로 되었으므로 그들에게

6) 이스라엘은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3. ()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레위기 1 ~ 5장)

- 1) 그 예물이 때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으로 드릴지니
- 2) 네 모든 소제물에 ()을 지라 네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네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 3)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위하여 여호와께 ()를 드릴지니
- 4)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 5)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를 ()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4. () 안에 맞는 것에 O표, 틀린 것에 X표 하시오. (레위기 6 ~ 10장)

- 1)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두고 물에 씻을 것이며 ()
- 2) 그 화복제 희생의 우편 뒷다리를 제사자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
- 3) 오늘날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하게 하시고도 명하신 것이니 ()
- 4)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의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자라 은 백성이 이에 보고 소리를 지르며 없었더라 ()
- 5) 화복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조금만 마셔서 너희 사방을 면하라 ()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본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와 봉사

주간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나니라
(골로새서 3:21)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성환 편집인: 김은호 편집국장: 조진근

크신 은혜 중 마친 '98 청지기 훈련 말씀에 갈급한 뜨거운 발길들로 가득찬 복음의 잔치

새벽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연일 이어지는 강령교육도 불구하고, 말씀에 대한 성도들의 뜨거운 열기는 식을 줄 몰랐다. 생업을 중단하고, 휴가를 내고, 또 연일 교회에서 숙식을 하면서 강의에 참석하는 성도들의 모습에 온 교회와 강사들은 모두 놀랐다. 첫날 저녁 개강예배 및 첫 강의에 참석한 인원은 3천명을 육박했고, 연인원 2만여명이 이 복음의 잔치를 가득 채웠다. 특히 수백명의 젊은이들이 매 시간마다 참석하여 말씀에 대한 깊은 관심과 사랑을 보여 주었다.

금번에 강의한 웨스트민스터신학원 교수들은 이러한 열기 속에서 강의한 것이 자신들에게는 전무후무한 경험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숫자의 성도도 그러하거나, 이들이 보여준 말씀에 대한 갈급한 자세

가 특히 감동적이었다고 전했다. 특히 일개 지역교회가 평신도들을 상대로 체계적인 석학 세 분을 모셔 강의를 듣는 것 자체가 유례가 드문 일이었을 뿐 아니라, '말씀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모든 초점을 맞추어 강의가 진행된 것 또한 복음의 실체가 흐려지고 있는 이 땅의 영적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의미심장한 시도였다. 특히 이번 강의는 지난 수개월에 걸쳐, 김성환 위임목사를 통해 심각하게 강조되어온 '복음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제 교회는 모든 강단을 복음만을 전하는 거룩한 말씀 성도의 자리로 확고히 자리매김하는 계기를 더욱 분명히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모든 공적인 예배와 집회를 통해 '복음 지향의 교회',



'말씀 순종의 교회'로 나아가는 말씀의 선포가 계속 이어질 뿐 아니라, 특히 젊은이들의 부흥을 이루고 있는 5부예배를 통해 충현의 다음 세대들이 복음 안

에 확고히 들어 서서 복음의 증인으로 자라가도록 하는 일에 더욱 힘을 모으게 될 전망이다.

위임목사 동정

김성환 위임목사는 2월 6일부터 27일까지 3주간의 휴식기간을 가지기로 하였다. 김 목사는 지난해 8월 21일 위임직 이후, 줄곧 매일의 새벽기도회와 금요집회, 그리고 주일 대예배와 청년예배, 찬양예배 등 정이예배뿐 아니라, 여러 부서와 기관의 특강을 맡아 섬기는 강령교육으로 인해 상당한 정도의 피로와 특히 무릎통증을 심하게 겪어왔다. 이에 당회의 권고와 직 목사의 수락에 따라 청지기훈련이 끝나는 직후부터 특별 휴가기간을 가지게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금번 휴식기간을 통해 김성환 위임목사의 건강을 온전히 회복케 하시고, 영적으로도 더욱 강건한 세대중심의 기로로 인도해 주시도록 은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요청된다.

중·고·대·청 선교수련회 2월 26 - 28일 하루 두회

선교위원회는 본래 2월 25일부터 2박 3일간 진행할 예정인 중·고·대·청 선교수련회를 다른 교육부서 겨울수련회와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26일부터 2박 3일간 진행하도록 하루를 늦

추었다. 다른 사항들은 큰 변동이 없다 (주간충현 1월 25일자 4면 참조).

장차 선교에 힘을 쏟을 하나님의 일꾼을 발굴하고 훈련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이번 선교수련회의 강사는 정갑신 목사 및 고·대·청 지도교역자(김필수, 김동환, 조진근 목사), 그리고 정평기, 정은희 선교전도사 등이다.

청빙 및 임명되신 분

지난 수년간 영예예배를 담당하다가 최근 잠시 자리를 비웠던 노봉린 목사가 금번에 다시 영예예배부 지도협동목사로 청빙되었다. 그리고 박태양 전도사(1967. 7. 9 생)가 선교전도사로 청빙되었다. 박 전도사는 중앙대 생물학과를 졸업한 후, LG에서 근무하던 중 작년 여름 퇴사하여, 지난해 12월 총신대 신대학 입학시험에 합격해 높은 상태이다.

또한 찬양위원회의에서는 올해부터 예배 찬양과 찬양대 지도 육성을 위한 전담직으로서 찬양감독직을 신설하고 강임구(1959. 8. 18)형 신로암찬양대 지휘자를 임명하였다. 이에 따라 강임구 지휘자는 신로암찬양대 지휘와 찬양감독을 겸직하게 된다.

성경연구원 개강

2월 28일(토) 저녁 7시 갈릴리홀에서 개강예배

매년 3월에 개강하는 성경연구원 전반기 성경공부금년에는 3월 3일(화)부터 6월 18일(목)까지 진행된다. 성경 출판하고 싶었다는 교회인권을 양성하고 말씀준비한 평신도를 양육하기 위한 목표로 진행되는 성경연구원에서는 충

현의 많은 일꾼들과 성도들이 이 정기적인 기회를 통해 말씀에 균형잡힌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길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자세한 강의 일정 및 강의 제목과 강사 소개는 2월 15일자 주간충현에 게재).

충현소석장학생 모집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일꾼 선발

전액 장학금 제도로 장학금 정선 살리려

지난 주 보도된 대로(주간충현 2월 1일자 1면), 도서관장학회에서 주관하는 장학금 지급규정이 수정 보완되어 당회의 결의(2월 3일 정기당회)를 따라 시행되게 되었다. 수정안의 골자는 지원에 일대인 추천으로 다수에게 소액의 학자금 지급을 통한 관심을 배제하고, 장학금 본래의 정신을 살려 자격이 갖추어진 소수를 선발, 전액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신실한 일꾼을 키우고자 하는 장학정신의 준수에 있다. 이에 따라 선발(추천)기준도 다소 엄격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장학금 선발기준 및 선발방법, 제출서류 등은 아래와 같다.

1. 선발(추천)기준
 - (1) 신앙이 독실하며 교회생활이나 가정생활이 타인에 모범이 되는 자
 - (2) 전국교회에서 소망감을 감당할 수 있는 장래가 촉망되는 자
 - (3) 충현교회에 등록된 중·고·대·대학원, 신대학 재학생
 - (4) 학교성적이 우수한 자(B 학점 이상. 단, 중·고생은 생활보조 대상자에 한해 예외적으로 학자금 지급)
 - (5) 당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6) 선교사 자녀
2. 추천인 자격

당회장, 소속부서장 및 지도교역자, 교구장 및 지도교역자
3. 선발방법

- 서류전형, 눈술, 면접
4. 제출서류

장학금 청원서, 이력서(사진첨부), 자기소개서, 명함한 사친 2매, 서약서, 입학허가서 사본(유학시험 합격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추천서, 장학금 비수혜 증명서(재학중인 학교), 전 학기 학업성적표(신청서류는 교육국에 비치)
5. 신청서 접수기간 및 장소
 - (1) 접수기간: 1998. 2. 8(수) - 2. 18(수) (단, 월요일 제외)
 - (2) 접수장소: 교육국(교육관 103호, 구 내전화 475호)
6. 눈술 및 면접일시 및 장소
 - (1) 눈술고사: 1998. 2. 21(토) 오전 10시 - 12시(국제회의실)
- * 신앙과 학문적 포부 및 계획에 대한 주제를 고시함.
- (2) 면접: 1998. 2. 21(토) 오후 2-4시(선교관 301호, 404호)
7. 기타 문의: 교육국

회계실무 교육

- 시간: 2월 15일 오후 3시
- 대상: 남녀전도의 회계, 부회계, 교육위원회의 회계, 부회계
- 기타: 위원회 총무처장, 총무, 회계
- 장소: 교육관 307호

● 감창인 목사의 이사야서 강해 ●

바벨론 징벌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

(이사야 13:1-5)

이 사야 선지자가 본문을 예언할 당시의 바벨론은 지극히 약소한 나라였고, 바벨론이 속해 있던 앗수르가 강대하여 동양상에 앗수르를 거를 나라가 없을 정도로 그 세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이사야는 170년 후에 바벨론이 부강해질 것이지만 또한 죄를 범하므로 멸망하게 될 것까지 미리 내다보고 마치 아이들에게 그림책을 보이며 이야기를 해주는 어른처럼 예언에 놓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는 전지하십니다.

1. 바벨론은 어떤 나라입니까

바벨론의 영토는 지금의 인도에서 아프리카의 구스까지 무려 1272마에 되는 큰 나라입니다.

바벨론의 영화는 물론 바벨론의 수도를 국가 명칭과 같이 바벨론이라고 했는데 이 성은 12평방마일이며 주위가 백 리가 넘는 광장히 큰 도성입니다. 수도 바벨론에는 유바르데스 강물을 잡아 성 주위를 둘러서 호수로 하였기 때문에 누구라도 바벨론 성에 들어가려면 강을 건너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처럼 비행기가 없는 그 당시에는 어떤 군대라도 도저히 침범할 수 없는 성입니다.

게다가 성벽의 높이는 115m 이상입니다. 이 성벽의 두께는 24m쯤 됩니다. 그러니 바벨론 성이 얼마나 튼튼한가는 알고도 남습니다. 그 성에 세워진 성문은 100개인데 구리로 만들었습니다.

바벨론 성 안의 궁궐은 대리석으로 기둥을 세웠고 운모석이나 백석을 깔아 놓았습니다. 궁궐 안 어전의 외자는 온 보석으로 꾸며졌으며 그곳들은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바벨론의 경제력은 다니엘 3장에 기록된 대로 두라 평지에 누부갓새살이 60억마에 되는 놀로 큰 신상을 순금으로 만들어 세웠으니 가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 바벨론 군대는 가는 곳마다 승리하였고 바벨론 도성 안에는 3년 이상이 나 먹을 양식이 비축되어 있어서 어떤 전쟁이 일어나도 두렵지 않게 수 있었습니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막강한 나라가 100년 후에 일어날 것을 내다 보았습니다. 이렇게 광강한 바벨론도 하나님께 정죄의 동용을 맞으려면 절그릇이 깨져듯이 산산이 부서질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2. 바벨론을 징벌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1) 하나님은 자신의 징벌을 하십니다

① 자산 위에 기호를 세우십니다.
“너희는 자산 위에 기호를 세우고”
(2절)

‘자산’은 풀 한 포기도 없는 벌거숭이 산입니다. 바벨론이 망할 때에 그 성주위에 있는 산이 풀 한 포기도 없이 전멸 당하겠다는 말이나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람이 미워지면 그 사람의 집에서 키우는 개나 닭나무까지도 미움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미움을 받으면 그 사람만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사는 산까지 저주를 받아 나무도 죽게 됩니다. 바벨론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때에는 풀 한 포기까지 죽어서 산부터 벌거숭이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산 위에 기호를 세우겠다는 말씀은 하나님에 보낸 군대가 가서 바벨론을 점령하고 기뻐할 달겠다는 말입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키기 전에 하나님의 군대로 하여금 바벨론 성 밖에 있는 산을 자산으로 만들어 버리고 그 자산 위에 하나님의 군대 기뻐할 곳을 찾아 휘날리게 하였을 때에 이것을 바라 보는 바벨론 성 안에 포위되어 있는 사람들의 가슴은 불안에 떨 것입니다.

② 자산 위에서 전 병력을 집결시키십니다.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2절)

자산 위에 모인 군인들이 소리를 높인다는 말은 대장이 명령하는 소리가 크고 병사들이 대답하는 소리가 크겠다는 뜻입니다. 한 마디로 말하면 사기가 충천하였다는 뜻입니다.

③ 자산에서 손을 흔들며 작전 지휘를 하십니다.

“...손을 흔들며 그들로 권위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2절)

이 말은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지휘관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지휘관이 손을 들어 바벨론 고관들이 백성에게 뇌물을 얻어 먹고 또한 말을 타고 거드름을 치며 주파하던 그들 문에 들어가라고 휘하 장병들에게 입성 명령을 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문을 ‘권위한 자의 문’이라 부르는데 이유는 그 속에 권위한 자의 집, 즉 위풍당당하며 재물이 가득 차 있는 집들이 많아 그 대적들이 풍성한 회회들을 기대하면서 그곳으로 오도록 유인하기 때문입니다.

“[2] 하나님은 메데 파사의 용사들을 불러 징벌하십니다 (사 13:3-4)

① 하나님은 그 기뻐하시는 자로 연합군을 조직하십니다.

“내가 나의 거룩히 구별한 자에게 명하고 나의 의복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를 품게 하겠다”(3절)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뻐하시는 용사들을 연합군으로 조직하여 보내겠다는 말씀인데, 그 연합군은 역사에 나타난 대로 메데와 파사라는 두 나라입니다. 메데와 파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할 당시 바벨론은 지극히 약소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170년 후에는 바벨론이 부강해질 것이지만 또한 죄를 범하므로 멸망하게 될 것까지 미리 내다보고 마치 아이들에게 그림책을 보이며 이야기를 해주는 어른처럼 예언에 놓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는 전지하십니다.



아니고 우상에게 제사하는 이방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구별한 자, 기뻐하는 용사’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싸움은 거룩한 싸움이요 이 싸움에 사용되는 자들은 거룩히 구별된 자임에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나의 거룩히 구별한 자에게 명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잠시 구별하여 쓰시는 몸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나라 가운데서 메데와 파사를 불러 ‘이 나라를 몸통으로 좀 써야겠다’ 하고 하나님께의 손에 드시고 쓰셨는데 이들 나라의 왕은 하나님을 무시하여 멸된 자들입니다. 비록 하나님을 정식으로 공경하지는 못했으나 하나님을 무시한 존재로는 앞섰던 백성입니다.

그러하여 메데와 파사는 바벨론을 점령하자마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자유를 선포하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도로 명령까지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임시로 택하여 쓰시는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노를 품게 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② 하나님은 연합군을 결집하십니다.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님이여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결집하심이라”(4절)

이제 너무 한 포기 없는 자산에 각 나라의 연합군이 많고 고관을 지니며 떠돌아다니고, 메데와 파사의 장군들은 자신들의 명령에 따라 병사들을 백 명, 천 명, 만 명이 정열해선 것으로 앞장서서 정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기야 백병이 차, 여기는 내 병이 차라’ 하여 그 군대를 결집하셨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큰 일을 한다고 떠돌아도 인간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3) 먼 곳에서 군병을 일으켜 징벌하

십니다

“우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가에서 왔음이여 곧 여호와와 그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5절)

바벨론을 치기 위하여 하나님의 군대가 지평선 너머 먼 나라에서 왔다고 하였는데 ‘먼 나라’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로, 거기까지 먼 지방에서 원수가 왔다는 뜻입니다. 바벨론과 메데 파사 사이에는 거대한 땅 앗수르가 놓여 있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먼 곳에 위치해 있어서 바벨론이 거의 두려움을 느끼고 있지 않던 때에 파사를 들어 채찍과 멸망의 도구로 쓰셨습니다.

둘째로, 반역하는 신화가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바벨론이 하룻밤에 멸망한 것은 먼 데서 원정을 온 메데 파사군이 강하여서 아니라 바벨론의 장군들이 자기 왕이 하는 행동을 보고는 그대로 있을 수가 없어서 ‘저것을 왕으로 섬기다니’ 하며 장군들의 마음이 멀어져서 메데 파사와 우밀히 대항하였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으면 사람이 망하기 전에 산에 나무와 풀이 먼저 망하여 자살이 됩니다. 사람이 복을 받아야 산천초목도 복을 받고 사람이 저주를 받으면 산천초목도 저주를 받습니다. 인간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본문에 통해 깨달아야 합니다.

둘째로, 나의 사정을 아는 자가 더 무서운 원수가 됩니다. 내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나를 위로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하지만 나의 사정을 잘 아는 사람 때문에 더욱 곤경에 빠지는 경우가 많은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모두 고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선하게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바로 아시면 우리의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ㅅ

● 김성관 목사의 주일 설교 ●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고린도전서 1:26-31)

저는 우리가 어디에서 시작했는가를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마음이 차오릅니다. 아멘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비전을 가질 수 있게 하시고, 우리들의 가슴의 문을 여셔서 쓰러져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손과 발을 내밀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써 주실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앞길에 흥해가 열릴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5주에배의 젊은이 여러분들이 이제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에 있는 자들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어디하나 보내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을 바라보라는 말씀이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 하나님 외에 다 우리를 부르는 또 다른 실체가 있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게 해 줍니다. 바로, 세상의 부름입니다.

우리들은 세상의 부름에 귀를 기울입니다. 여러분은 그 부름에 자신을 적합하게 맞추기 위해 노력을 기울입니다.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도 여러분이 그 세상의 부름에 더 잘 적응하도록 돕기 위해 모든 것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떤 사람을 부릅니까? 지식이 있는 사람을 부릅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온 힘을 다해 공부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좋은 학교에 가려고 기를 씁니다. 이 세상은 능력이 있는 사람을 부르고 찾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능력을 갖추기 위해 땀을 흘립니다.

가난히 보면, 백미더 달리기 시합을 할 때, 일등과 이등의 차이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10분의 1초 이하의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세상은 바로 그 차이를 가지고 일등을 추경제우라 이등은 그늘에 가리게 합니다. 반대로 일등은 이제까지 젊은 시간을 조금 더 빨리 달렸다고 해서 온 세상의 주목과 찬사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에 본문에서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는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이 말씀을 쭉쭉 따라서 읽어가다 보면, 세상의 높은 مقام에 비해서 천국의 مقام은 얼마나 낮은지를 쉽게 말하게 됩니다. 단지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죄된됨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그 مقام은 언제든지 넘어갈 수 있고

목 낮아져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엎드려 겸손히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에게 천국의 답장은 너무나 낮습니다. 자존심을 버린 자들입니다. 자신의 지혜를 버린 자들입니다. 자신의 교만을 죽인 자들입니다. 바로 이렇게 자신이 부인된 자들을 부르실 때, 세상적인 기준을 철저히 배제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요 신비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비밀이요, 우리에게만은 말로 말할 수 없는 복음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날 너무

우리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 그의 백성이 되어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젊은이 여러분들에게 항상 변치 않고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 안에 거하셔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성령님께서 내 심령에 거하심으로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죽을 때에는 주님의 얼굴을 대하면서 영원히 주님과 동거할 수 있는 특권을 항상 받아가지고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은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이, 또 교회 지도자를 양성하는 신학교들이 이것을 제대로 모르고, 다른 것, 성경지식을 가르치려고 힘을 쓰는 것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생명의 말씀 대신, 성경 안에서 사람의 철학과 사람들의 가치와 인격도야의 가르침들을 발견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머물러 보십시오. 오대째 그분이 우리에게 사람의 철학과 사람들의 가치와 인격도야의 가르침을 전해 주시기 위해서, 바로 그것을 위해서 그 고귀한 피를 뿌리신 것이니까? 아닙니다. 그분이 말기유에 나셨을 때, 그분이 가장 겸손하고 또 겸손하게 낮아지셨을 때, 그분이 죄수의 몸으로 죽으셨을 때, 그분은 죄수의 몸이 되어,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분은 사람들을 깨는 것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려 오신 것입니다. 이 낮아짐으로 생명을 주시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들에게 축복을 구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사는 사람들 중, 복받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선전하고, 우리가 갈망하고 있는 그 복은 어떤 복입니까? 지극히 일시적인 복입니다. 진정한 복이 아닙니다.

참된 복은 오직 하나님이 주신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

니다.

자신을 죄인 중의 죄수로 전정으로 고백하는 사람, 주님이 없이는 죽은 존재라고 고백하는 자,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세상에서 도무지 진리를 따라 살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를 부르십니다.

놀라운 말씀이 이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동행했습니다. 그의 피에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께서 영원히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지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입니다. 찬양을 드릴 뿐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여러분들에게는 실력과 능력과 지혜가 있습니다. 따라서 세상이 여러분을 평가할 때, 여러분은 예수님이 없이도 스스로 잘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자신의 자부심과 명성이 여러분을 지탱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세상은 판단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우리됨의 근거가 우리 자신의 실력과 지혜와 명성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조건에 의해서 부름받은 존재들이 아닙니다. 아무 쪽에도 쏠도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직 그 사실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 그의 백성이 되어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젊은이 여러분들에게 항상 변치 않고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 안에 거하셔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성령님께서 내 심령에 거하심으로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죽을 때에는 주님의 얼굴을 대하면서 영원히 주님과 동거할 수 있는 특권을 항상 받아가지고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

도의 십자가 안에서 얻게 되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영원한 구원의 복입니다.

이를 위해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에 참여하는 성만찬의 의미를 깨닫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들에게 이 놀라운 진리를 허락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피가 나와 관계를 가지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삼일만에 살아나신 후, 우리를 향해 온 세상을 향한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을 명하셨습니다. 이 증인되는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확인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마태 선생님은 우리에게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세상이 찾는 자들을 부르시는 것이 아닙

청지기훈련을 마치면서 함께 나누고 싶은 은혜

■ 감사들과의 지상대담

말씀 안으로 들어간 은혜의 시간

송기홍

(장로, 교육훈련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교회를 위하여 2월 2일부터 5일까지 '98 청지기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은혜 중에 마치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연례 행사로 해 오던 청지기훈련이었지만 이번 훈련은 방법론이 아니라 기쁨에 충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통례, 풀러, 앤스 교수님을 통해 성경 전체, 특히 시편, 히브리어, 이사야서에 기록된 말씀의 본질과 비밀을 깨닫는 기쁨을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심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각 부서와 기관에서 맡은 달란트로 충성하던 청지기들은 직장에서 시달리고 가정 생활에 피곤한 몸을 개하지 않고 은혜의 말씀을 배우려고 모여 왔습니다. 특히 21세기의 주자로 다음 세대를 이끌어 우리 청년들과 대학생들이 귀한 시간을 바치고 말씀을 배우려고 들어실 때마다 가슴이 뭉클하며 보였습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 저 자신이 말씀 안에 들어가는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늘 읽고 들은 말씀이지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주 예수님을 내 안에 보게 주신 것입니다. 이번 기간에 보이는 곳에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신 손길과 다 천국을 소유하는 기쁨으로 가득 차기를 기쁘히 감사드립니다.

청지기훈련은 막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역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훈련의 목표처럼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심자기를 지고 충성하며 봉사하고 전도로 열매 맺는 훈련과 사역이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하나 된 우리는 사역에 있어 우선 순위를 확실하게 정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으로 말입니다(마 6:33). 모든 열매를 하나님께 돌려 드립니다.

— 먼저, 금번에 어려운 일정을 내서서 귀한 강의로 수고해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방문이 처음이신가요? 아니면 이전에라도 말씀하신 일이 있으신가요? 전에 방문하셨다면 주로 어떤 일과 관련해서 오셨나요?



“이번이 네번째인데, 주로 신학교 세미나 인도자 왔었습니다(풀러). 처음입니다(앤스). 이번이 세 번째 방문입니다. 1986년에는 선교훈련원 강의의 차 있었고, 1996년에는 서울대학교 근처에 있는 한 교회에서 강의하기 위해 왔었습니다(통례).”

— 강의를 하시면서 성도들의 분위기가 어떠했던 것 같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을 분명히 볼 수 있었습니다.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찾으려는 모습이 역력했던 것 같습니다. 모두들 친절하게 대해 주어서 정말 기쁠것입니다(통례). 만나는 성도들마다 모두 친절

했고, 또 매우 경건해 보였습니다(앤스). 말씀에 대한 깊은 사랑과 예수님을 향한 열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나사 드신 권사님들의 기도하는 헌신된 모습을 보는 것이 좋았습니다(통례).”

— 총련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읽는 태도에 관해서 들려 주시고 싶은 조언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 읽기는 매일 꾸준히 이어지는 훈련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이 읽느냐보다 어떻게 읽느냐가 중요합니다. 주의 깊게 읽을 때에 하나님의 어머하심에 대하여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한국 교회 성도들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대단히 진지하다는 이야기를 들어왔었는데, 이번에도 그 이야기가 사실임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앤스). 어려운 시기를 맞아 한국의 성도들이 더욱 기도하면서



사랑 하나이다

말씀을 잘 이해하고, 특히 말씀의 권위를 무시드리려는 세속사상들을 단호히 배격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의 죄인됨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비행기를 타고오는 동안 졸음 내 옆에 앉아서 말씀을 읽는 한 한국 여성을 통해서 깊은 감명을 받기도 했습니다(풀러). 매일 말씀을 읽을 때에, 특정부분에 편중되지 않도록 성경 전체를 읽어가는데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국의 성도들이 헌신적인 분들이라는 소리를 익히 들어 왔습니다(통례).”

— 앞으로 한국에 다시 방문하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저는 여행이 힘들고 나이도 들어가고 해서 좀 어려울 듯합니다(풀러). 지금 당장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자주 오고 싶습니다(통례). 적도 마찬가지로입니다(앤스).”

시편절에 응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편 구절마다 숨겨진 예수님 발견하기 위한 성경 읽기

문하숙

(16교구)

2월 2일 저녁부서 3일 저녁 시간까지 계속된 토목과 시편 강연에 빠짐없이 참석하여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시간간식 강의가 계속되어서 점차적으로 펼쳐지는 시편의 전체적 개관과 시편으로부터 신구약 전체로 연결되어서 종래에는 창세기의 에덴동산에서 계시록

의 새 예루살렘으로, 구약의 성전(聖殿)에서 신약의 영적 전쟁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으로부터 우리의 출애굽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사도 확신되고 완성되어가는 말씀의 파도라마 앞에 압도되며 충임되어지는 은혜의 시간들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시편 98편과 77편의 각편 강해를 통해 시편 읽기의 새로운 눈을 뜨게 된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동안 단순한 수사적 표현으로 범상히 넘어갔던 구절을 속에서 나의 구속자가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시며 갈래에 심관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찬란한 영광의 빛을 입고 부상하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탄식의 넋두리를 거두어내고

우리의 전사로서 오늘날 우리의 영적 전투를 진두지휘 하시며 마침내 모든 악을 멸하시고 최후의 승리를 거두실 만군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셨습니다. 10시간 가까이 물놓듯이 부여 주신 그 풍성한 은혜의 분량을 다 다지 담기에 용량 미달인 나의 그릇 크기와 작은 은혜조차 제대로 전달할 수 없는 짧은 필릭이 어찌랴를 뵈었습니다.

값없이 귀원의 은혜를 입은 후 때마다 일마다 담으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지만 이번 청지기훈련은 은혜 위에 은혜라함에도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그동안 영적 무지 속에 안주해 왔던 어두움과 안일을 벗어버리고 슬픈것이고 의 무적인 성경 읽기가 아닌 참 스승으로서 성령님의 조명하심 속에 시편 구절마다 보석처럼 숨겨진 사실 사랑하는 예수님을 발견하기 위한 기대에 찬 영적 탐사의 성경 읽기로 다시 출발하고자 합니다.

말씀 통해 체휼하시는 하나님

강석주

(17교구)

‘훈련’—세 분의 석학을 보내심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나흘간의 별신—은 하루 세개로 나누어 먹었다. 손, 발은 부지런히 수고로 적잖이 바랐고, 국수와 커피도 거르지 않는 나흘

음으로 얼굴과 얼굴에는 새로운 흥조가 감돌았다.

우리의 모습을 다듬는 거울이 말씀의 중앙에 있었다. 나의 마음을 이미 읽으시고 미로 같은 심령을 만져 주시는 세밀한 음성들 들으면서 말씀을 통해 체휼하시는 하나님께 만날 수 있었다.

시온산으로 올라가는, 성전으로 올라가는 힘입은 시편 131편, 다시 98편, 구원자이셨으며, 왕이시며, 심판주이신 예수님을 보시며 앞으로 만날 클리마, 하나님을 거스리는 안락의 악의 세력을 대비해 무기인 ‘말씀’을 기억하도록 하시다.

이שראל 백성들이 전쟁을 앞에 두고 방패로 손은 거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절박한 탄식은 출애굽을 상기하게 하심으로 확신의 찬양으로 바뀌고 언어를 상기하게 만드셨다. 두려움과 어려움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 지금에 우리가 혹 잊을까 하여 출애굽을 기억하게 하신다. 말씀의 구속구적력 대한 백성들을 반드시 회복하신다는 근거와 언약이 있음...

경주장에 서서, 준비된 선수들과 긴 고도 좁은 트랙을 경주할 때, 예수님께 서 먼저 뛰어가신 흔적을 보며, 목표에 가서 기다리시며, 또한 우리와 함께 뛰고 계신 예수님 따라갈 일!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안전한 것 미리 아시고, 영리로 우리들로 두면 들려 주시는 은혜의 훈련장에서 아버지의 책의 말씀을 듣고 읽으며 강자 오실 예수님 만나는 기쁨을 지금 맛봅니다.



▼ 휴식 시간은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